

퀀틴전시 플랜

중국 지수에 투자하려면 어느 지수가 유리할까?



[투자전략팀]

조재운 / Quant Strategist
jaeun.jo@daishin.com

이경민 / Strategist
kyoungmin.lee@daishin.com

경제지표

요일	주제
월	이슈/변곡점 분석 및 전망
화	경제지표/이슈 점검
수	증시 성과 요인 분석
목	실적 컨센서스 점검
금	밸류에이션 점검, 주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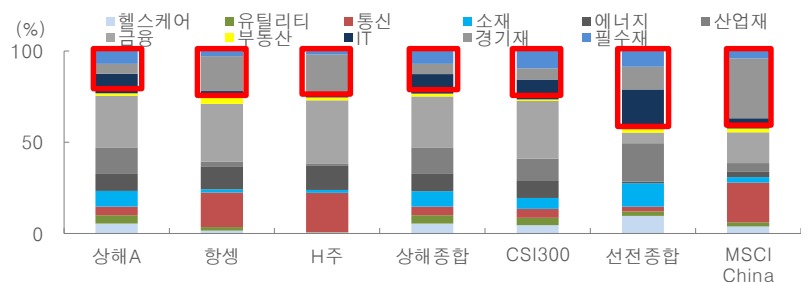
퀀틴전시 플랜 자료는?

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**퀀트, 전략, 시장**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.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,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
급등하는 중국 증시. 어떤 지수가 유리할까?

- 중국 정부의 부양책 발표 이후 중국 증시는 급등. 부양책 발표 전인 9월 20일 대비 국경절 연휴 직전인 9월 30일까지 10일 간 20~30% 상승
- 상승폭이 컸던 순서대로 나열하면 MSCI중국(30.5%), 선전종합(29.0%), H주(항셱중국기업, 27.8%), CSI300(25.5%), 항셱(24.5%), 상해A(21.9%), 상해종합(21.9%) 순
-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MSCI 중국 지수에서는 GICS1(11개 섹터 분류) 섹터 중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섹터로 부동산(37.7%), 필수재(36.1%). 두번째로 높았던 섹터는 IT(27.7%), 헬스케어(25.0%), 경기재(23.3%), 산업재(22.6%), 소재(21.8%). 금융, 통신, 에너지, 유틸리티는 10% 중반의 수익률을 기록
- 이번 중국의 부양책은 금융위기 당시 부양책과 비교하면 소비에 집중. 금융위기 부양책은 상대적으로 인프라 건설, 기업 지원과 관련된 부양책이었다면 현재 부양책은 소비와 주가 부양에 집중된 정책으로 판단
- 과거와 현재 모두 실시했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과거에 부동산 개발, 건설, 재건축 위주의 정책을 펼친 반면 현재는 거래 활성화에 집중. 또한 과거 부양책은 농촌기반시설, 철로, 도로, 항만, 도시 인프라 등 인프라 구축 및 재건을 강조한 모습이었다면 이번엔 해당 정책이 빠진 모습
- 따라서 이번 부양책에서는 과거 대비 원자재, 소재, 산업재 섹터의 상승 수준이 줄어들고 IT, 소비재 섹터의 수혜는 증가할 가능성
- 그 결과 중국 증시를 대표하는 6개 지수 중 IT, 소비재 비중이 높은 MSCI중국, 선전종합지수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
- MSCI중국의 섹터 구성은 경기재(32.8%), 통신(21.8%), 금융(16.8%) 순으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재와 통신 섹터 내에는 텐센트,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 기업이 다수 포진. 그 외 BYD, JD.COM 등 소비재 기업도 포함
- 선전종합지수는 IT, 산업재, 소재 섹터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IT장비기업과 전기차, 2차전지, 소비재 관련 기업이 다수 분포해 있기 때문. 금리인하에 따른 수혜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
- 필수재 섹터 상승률이 높았던 만큼 필수재 비중이 높은 지수는 상해A, CSI300지수(각각 7.1%, 9.5% 비중을 보유)도 주목할 필요
- 중국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국내 섹터로는 화학, 기계, 비철/목재, 철강, 건설/건축, 운송 등

중국 주요 지수 섹터비중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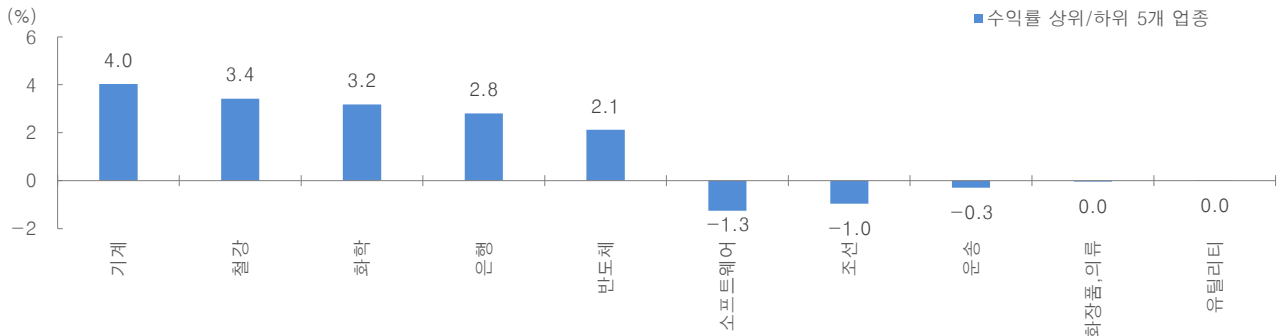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Refinitiv, iShar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업종 수익률 및 특징주

- 테슬라 로보택시 기대감 및 LG에너지솔루션의 테슬라형 배터리 양산 소식으로 이차전지 업종 상승하며 철강 및 화학 섹터 강세
- 중동의 지속적인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방산업 강세
- HBM 관련주 및 후공정 업체 강세 보이며 반도체 업종 상승

수익률 상위/하위 5개 업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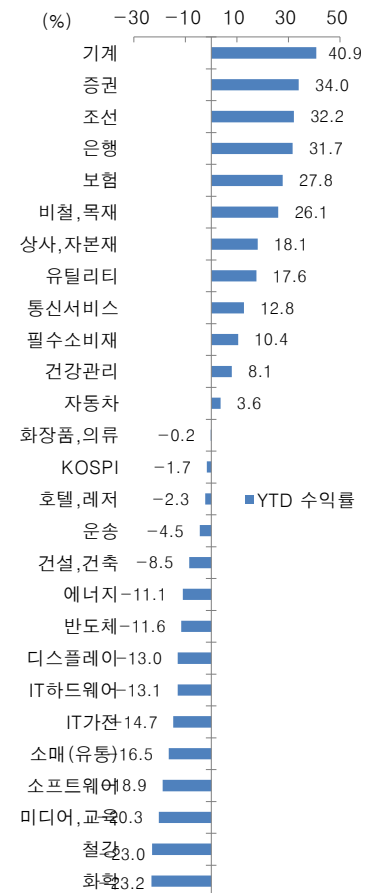
기준일: 24.10.08
 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KOSPI, 업종별 수익률 추이

주요 지수	현재가 (p)	등락율(%)						
		1D	1W	1M	3M	6M	12M	YTD
KOSPI	2,610	1.6	0.7	2.6	-8.8	-3.8	8.4	-1.7
에너지	3,696	1.0	0.4	6.0	1.8	-4.7	-1.8	-11.1
화학	5,187	3.2	1.0	15.2	-6.9	-12.1	-20.4	-23.2
비철,목재	4,947	1.1	9.1	27.8	18.1	27.3	16.0	26.1
철강	2,565	3.4	-0.5	14.8	-0.3	-5.3	-24.3	-23.0
건설,건축	1,149	0.1	-1.0	-2.2	-2.3	-3.7	-7.2	-8.5
기계	3,359	4.0	3.7	20.3	0.4	18.0	48.6	40.9
조선	3,454	-1.0	-0.6	5.4	9.5	31.0	43.6	32.2
상사,자본재	1,594	1.9	3.7	4.7	2.9	7.1	36.3	18.1
운송	1,454	-0.3	-5.5	3.9	-5.7	7.8	9.1	-4.5
자동차	9,189	2.1	0.4	4.2	-13.9	-1.5	12.5	3.6
화장품,의류	4,046	0.0	-2.8	5.2	-0.4	5.3	5.4	-0.2
호텔,레저	1,820	0.6	-2.0	-0.1	7.0	-3.5	14.6	-2.3
미디어,교육	515	0.5	1.2	1.1	-8.4	-17.7	-19.6	-20.3
소매(유통)	1,688	1.2	-1.2	-2.3	0.0	-10.9	-19.0	-16.5
필수소비재	5,379	0.9	-2.6	-0.3	0.4	11.5	13.4	10.4
건강관리	9,137	0.1	0.6	3.9	14.9	16.2	28.3	8.1
은행	1,844	2.8	3.5	0.7	0.3	15.2	40.2	31.7
증권	1,344	1.0	2.1	4.4	9.2	13.8	48.7	34.0
보험	7,298	1.3	-0.2	-3.4	-5.5	9.3	24.1	27.8
소프트웨어	5,578	-1.3	-0.8	5.3	-2.4	-9.4	-1.5	-18.9
IT하드웨어	836	1.5	-0.6	1.1	-21.8	-12.8	-5.2	-13.1
반도체	8,785	2.1	0.9	-4.5	-27.8	-21.3	4.8	-11.6
IT가전	2,285	2.1	-0.7	8.3	-0.2	-3.9	-13.9	-14.7
디스플레이	678	0.9	-1.8	0.7	-15.2	-2.0	-6.0	-13.0
통신서비스	317	0.5	1.8	-0.8	9.9	9.9	16.4	12.8
유틸리티	768	0.0	-1.9	-4.0	2.2	6.0	23.9	17.6

주: Top 5, Bottom 5
 기준일: 24.10.08
 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KOSPI, 업종별 YTD 수익률



[Compliance Notice]

금융투자업규정 4-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담당자: 이경민, 조재운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